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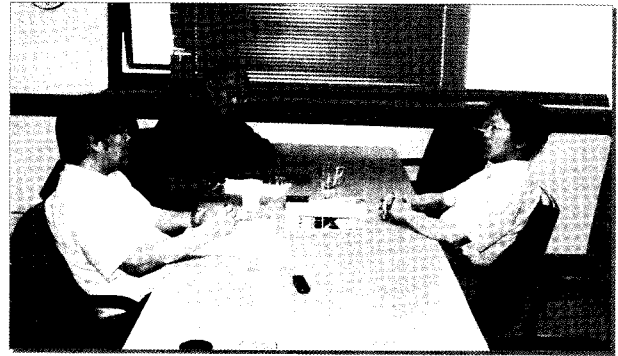
롯데국제교육관

Lotte International Education Hall

안우성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안우성 건축사는 착실히 기본기를 다진 건축사로 보여졌다. 그의 수련 과정과 관심분야를 보면 매우 견고한 과정을 거쳤고, 실용적인 설계에 능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안전건축사와 온고당은 그런 기반 하에 자리잡을 것으로 여겨졌다. 지금도 매우 다양한 프로젝트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하겠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건축을 많이 하길 기대한다.

글_유정훈 교수, 박인수 건축사



●●● 유정훈(이하 유) :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인수(이하 박) :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인터뷰의 성격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건축에 대한 설명보다는, 좋은 건물을 만들어 내는 주체로서의 설계사무실을 대상으로 하지는 의도입니다. 또 현재 아주 유명해진 분들보다는 곧 유명해질(?) 분들을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에 관한 인터뷰나 담론은 종종 있는데 비해 설계사무실에 대한 내용은 별로 다루진 바가 없어서 말이죠. 우리와 같은 인터뷰가 아마도 국내에서는 처음이 아닐까 합니다만 이제는 지속적으로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안우성(이하 안) : 참 재미있군요. 건축사사무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또 그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 유 : 우리네 건축실무에서 거의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은 뭐 워낙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의 토로함도 좋겠고, 건축사사무소를 둘러싼 건축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기 위함도 이 인터뷰의 목적이지요.

● 박 : 또한 한 건물을 계약하고, 설계하고, 허가받고, 납품하는 설계과정 중에서 생긴 문제도 나누어지면 좋겠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건축사의 역할과 준공의 문제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건

축에 대한 내용도 다를 수 있다면 다루도록 하지요.

● 안 : 건축에 대한 내용이 짧아서 좋네요. (웃음)

● 박 : 네, 건축에 대한 내용이 흥미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간 다른 협회나 언론에서 건축에 대한 내용은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 유 : 그러면, 각설하고 시작하실까요? 우선, 사무소 이름이 온고당이네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에서 나왔겠지요? 소개해 주세요.

● 안 : 작고하신 저희 선친께서 동양화를 하셨는데, 50년대에 서울에 오셔서 안국동에 있는 덕성여중 교정 안에 조그만 관사에서 화실을 운영하셨지요. 그 화실의 이름이 온고당이란 한옥이었어요. 당시에 선친은 마흔이셨고 할머니가 계셨는데, 시인 고은 선생님 등 예술계의 여러분들이 밤에 방문하셔서 밥 얻어먹고, 술 드시고, 이야기 나누시던 장소였습니다. 학교 교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월담을 하여 들어들 오셨다고 해요. 사랑방 역할을 했다고나 할까요. 비록 제가 선친이 작고하신 한참 후에야 사무소를 열었지만 옛날의 그러하였던 사랑방의 역할이 좋아서 그 이름을 물려받고 싶었습니다.

● 유 : 선친께서는 온고당에 얼마나 계셨나요?

● 안 : 1950년대 후반에는 덕성학교 선생님을 그만 두시고 성신여대로 옮기셨습니다.

인터뷰 일자 2010년 6월 22일
장 소 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회의실

참 석 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안우성 건축사 (주)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박인수 건축사
우송대학교 건축공학과 유정훈 교수

● 박 : 그 온고당 건물이 아직 남아있나요?

● 안 : 지금은 없어졌지요. 덕성여대에서 그 건물을 산꼭대기에 새로이 지으려고 했다는 이야길 들었어요.

● 박 : 사무소는 언제 시작하셨나요?

● 안 : 2001년도입니다.

● 박 : 창업하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나요?

● 안 : 사람마다 창업하기 전 과정이 모두 다르겠지요. 저는 1991년도에 대학원을 졸업한 뒤 유걸 선생님하고 6개월 정도 함께 일을 하고, 병원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공간체계연구소라는 곳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곳이 한양대학교 이정만 교수님께서 연구하시고 작업하시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현대아산병원 B동을 세울 때 함께 일 하였습니다. 그 후 미국 유펜(U-Penn)에 2년간 유학을 다녀와서, 송효상 선생님 사무소인 이로재에서 한 5년 반 정도 근무하였지요. 그 때 송 선생님 사무실에는 워낙 일이 많았어요. 실제로 지어지는 건물도 많았어요. 그때에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다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큰 사무소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로재에 한 3년 근무하고 큰 사무소로 옮기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입사를 하니 나올 수가 있어야죠. 한 12명 정도의 사무소였고 늘 야근을 하는 상황에서 제가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철야를 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을 생각하니 쉽사리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2000년도 말에 건축사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1년에 정말 우연치 않게 개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감리업무가 처음 일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또 하나의 일을 하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일 후속 일이 안되면 좀 규모가 있는 큰 사무소에 가서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길 원했었지요. 그런데 두 번째 일이 생기고, 또 세 번째 일이 생기고 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연찮게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 박 : 네,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좋은 건물을 설계하는 조직으로서의 건축사사무소는 어떡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 : 지금 온고당에는 제가 있고 또 소장급 직원이 두 명 있는데, 워낙 건축사사무소 조직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고 또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디자인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 이것이 사무소 내에서의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 됩니다. 저는 제가 배웠던 내용을 그들과 공유하고 그들도 저처럼 일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정신을 심어서 계속적으로 제안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건축 시스템은 어떻게? 또 이런 디테일은 어떻게? 하는 식의 내용인데, 구성원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게 좋은 건물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 유 : 온고당은 실시설계를 직접 하시나요?

● 안 : 네, 100%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 : 실무는 주로 이로재에서 경험하신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시스템이란 것이 이로재의 것과 같은 것인가요? 혹은 안 건축사께서 스스로 많은 개선을 하신 거라 할 수 있을까요?

● 안 : 실시설계를 체크하고 검토하는 것은 이로재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교 다닐 때부터 관심이 많아 개인적인 공부를 했었습니다.

● 박 : 말씀을 정리하면, 안우성 건축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실무진과 새로운 것을 찾는 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겠군요.

● 유 : 제가 보기에는 사고는 다양하나 품질은 일정하지는 생각 같아요. 다르게 말하자면 마음은 하나이나 머리는 각각, 손은 하나...

● 안 : 실무진이 그간 저와 함께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하면 제가 하듯이 설계를 하고, 또 검토하고 해서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고, 품질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에는 좋은 건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박 : 혹시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온고당이 다른 사무소와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는 점이 있나요?

● 안 : 저희가 실시설계 경험들이 많고 특히 토목이나 구조분야에서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런 분야의 적정설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건축구조는 시스템을 어떻게 정하느냐 또 기둥을 어디에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기거든요. 또 캔틸레버 등도 제법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의 폭도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박 : 우리 건축계의 업무기준을 보면, 기본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설계의 각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맞추어 설계를 진행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지요?

● 안 : 크게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중간설계와 실시설계는 이어서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건축주에게는 매우 구체적으로 중간설계를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콘센트 위치, 전등 종류 등을 협의하는 것이지요. 이런 중간설계 과정이 끝나면 '당분간 절 찾지 마세요.' 라고 건축주에게 말씀드리고 계속 실시설계를 진행합니다.

● 박 : 기본설계는 확실히 분리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분리되나요?

● 안 : 가장 기본적인 평면, 입면, 단면과 재료(외부), 법규검토 그리고 향후 과정의 설명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요. 중간설계는 구조 기본도, 기계, 전기, 조명, 내부 전개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실시설계는 나머지 시공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 박 : 이런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인원이 부족하거나 사무소의 역력이 부족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진 않나요?

● 안 : 물론 발생할 수 있지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100%하다 보니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 : 그럼 외주를 보내고 싶은 충동은 있겠네요.

● 안 : 사실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일하던 소장이 독립하여 차린 사무실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을 주어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의 연속성과 품질은 보장될 수 있었지요.

● 유 : 일을 수주하는 방법은 어떠신지요? 현상설계에 많은 비중을 두시나요?

● 안 : 저는 수주가 외줄타기라고 생각해요. 떨어지면 죽는다는 뜻이죠. 시작할 때부터 아름답기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2003~4년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과 그 분들의 아는 분들을 통해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발이 넓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때까지 현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 하였죠. '참 신기하다' 라고. 그리고서 이렇게 민간에만 의존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외줄타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쉬웠던 것이, 저의 쌓인 경험이 알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유치원 해보았느냐, 학교 해보았느냐, 주택 해보았느냐고 물을 때 자신 있는 대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빨리 완공되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역력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사무소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사람을 조금씩 늘려나갔고 현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큰 건물이 당선되면서 안정된 금전적 환경을 만들 수 있었지요.

● 박 : 그래요. 그런 와중에 제일 좋았던 것과 또 제일 나빴던 것 하나씩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안 : 첫 건물 완공해서 오픈식 했을 때, 그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 건물이 우먼케어여성병원이라는 병원건물이었는데요. 진짜 기뻐했습니다. 계속 기뻐야 하는데, 지금은 좀 무더진 느낌이 있죠. (웃음) 또 그 전에 첫 계약하고 돌아올 때도 물론 매우 기뻐요. 제일 기분 나빴을 때는 제가 디자인한 건물이 지어졌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죠.

● 박 :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건물이 다음 건물에서는 좀 더 잘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거나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 안 : 소중한 경험이지요. 타협할 것을 타협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해야 하는데 제가 그런 면에서 방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와 건축주가 너무 잘 통해서 저만 모르게 건축이 마구 바뀔 때, 또 시행사가 디자인의 권한을 건축사에게 확실하게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건물의 색이 바뀌거나, 분양성을 이유로 이상한 것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진행하는 것 등이 참 문제가 되지요.

● 박 : 다시 사무소 이야기로 돌아가서, 온고당은 몇 명으로 구성되었나요?

● 안 : 사무소 내의 건축디자인이 15명이고 외근, 즉 감리가 7명입니다.

● 박 : 현장이 7개나 되나요?

● 안 : 아닙니다. 4개의 현장이고 책임감리가 한 곳 있습니다.

● 박 : 온고당이 책임감리회사이군요. 감리는 어떻게 수입하셨나요?

● 안 : 현상설계에 당선되었는데, 발주처에서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 유 : 훌륭한 발주처입니다.

● 박 : 안우성 건축사께서 보시기에 바람직한 사무소 직원의 상을 말씀해주세요.

● 안 : 매우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글썄요... 저보다 나은 직원이면 바람직하겠네요. 그리고 건축은 기본적으로 꼼꼼한 성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덜 하는 사람이 좋겠고 건축하는 사람은 워낙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원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 또한 필요합니다.

● 유 : 신입사원은 어떻게 선발하시나요?

● 안 : 처음에는 교수님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성적 중에서 설계과목의 성적을 확인합니다. 시험으로는 작은 과제를 주어 설계해보도록 하고, 글쓰기와 스케일 감각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통하여 선발되니까 비교적 성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유 : 그렇게 해서 선발된 인원의 인성들도 괜찮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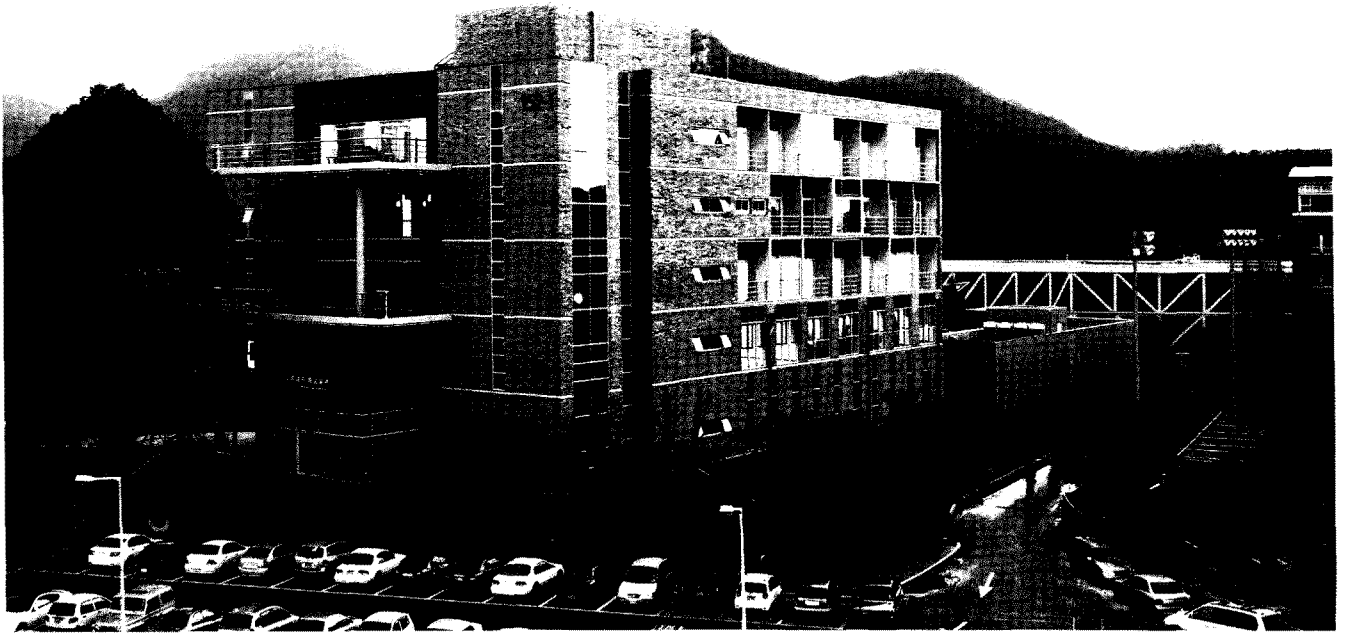
● 안 : 네, 그렇습니다.

● 박 : 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 안 : 조직이 크지 않다보니, 관리는 한 사람이 전부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BIM이나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역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R&D분야가 매우 약하다는 것이죠.

● 박 : 그런 것을 협회 같은 곳에서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요

● 안 : 그렇죠. 저렴하게 강좌 같은 것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사무소 경력이 없다보니 큰 규모의 사무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기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근무 매뉴얼이나, 신입사원 교육 같은 것 등도 매우 알고 싶은 분야입니다. 저희도 직원들끼리 간단하게 정해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체계적인 면에서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입사원은 매일매일 조금씩 선임자들로부터 배우나가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방식 보다는 매뉴얼 등이 있어서 첫 출근 전에 숙지하고 출근하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화기 쓰는 것 배우고 내일은 컴퓨터 셋팅 배우고 하는데, 누가 좀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는데 다들 바쁘니... 간혹 다른 곳에서 얻어다 쓰긴 하지만 결국 저희랑 잘 맞지 않아서 힘든 면이 있지요. 차라리 미국의 AIA처럼 건축사협회 등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규모별로 운영지침을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사실 조달청에서는 자신들이 납품받을 때마다 캐드의 레이어가 다르고 해서 나름의 표준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협회 차원에서는 앞서서 해볼 만한 일이지요.



롯데국제교육관 전경

※ 박 : 한국 건축계에서 실무를 하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 안 : 우선, 건축계에 세 단체가 있는데, 그 힘이 매우 약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 모여도 건설협회 하나의 힘도 못 따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턱키 발주 방식 같은 것은 없어져야 하는데도 버젓이 살아있고, 시공사가 설계 검업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저희로서는 힘이 부족하여 논리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하나는 도심재정비 같은 경우인데요, 이것도 매우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뭐 제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이러한 제도가 전 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 관련 협회가 나서서 반대해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계 내에서도 저와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대규모 개발로 도시가 변모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참으로 고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도시하는 분과 건축하는 분들이 모여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결정을 따라가는 형상이 되고 이러한 가운데서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들은 모두 일감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환경도 안 좋고, 일도 없어지는 형국이지요.

• 유 : 들은 이야기로는 서촌마을에 대한 계획 과정에서 곤욕을 당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안 : 네. 제가 그 곳의 지구단위계획을 했어요. 체부동, 효자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몇 곳의 재개발을 못하도록 했었거든요. 당시 주민총회를 하는데, 주민대표 3인이 단상에 올라와서 제 먹살을 잡았었어요. 얼마 전 지방의원 선거에서 그분들이 모두 구의원 등에 당선되었더라고요. 사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주민들의 반 정도는 개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조합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개발을 찬성하고 추진하려고 하지요. 지금 실행되고 있는 제도가 얼마나 나쁘냐하면, 원래 조합이 결성되면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이 없잖아요.

이때 건설회사가 조합과 연대하게 되요. 몇 억을 대주게 되죠. 그러니 조합은 빚을 지게 되고, 빚이 되니 무조건 재개발을 성공시켜야 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최선을 다하게 되지요. 거기에 또, 아파트 설계 많이 하는 설계회사와 또 정비회사 등이 함께 개입하는 구조이죠. 그런데 이 모두 다 현행법에 빈틈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아무도 돈을 내서도 안 되고, 계약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미리 다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죠.

• 유 : 이걸 대단히 중요한 문제네요. 또 법의 집행 문제이기도 하구요.

• 안 :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는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공무원들도 설계자가 건물과 현장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설계자가 감리할 수 없는 것이 큰 문제이라는 점을 이미 다 알고 있는 형편입니다.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건축사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의 생존과 관련하여 특검제도 등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요. 감리는 설계자가 하도록 하루 빨리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감리를 설계자가 하게 되면, 현상설계 참여 횟수가 줄어들게 되겠고, 더 많은 건축사사무소가 현상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상설계비 보다 더 많은 감리비를 지불한다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경우도 설계와 감리 때문에 웃기는 상황이 일어나지요. A라는 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B라는 건축사사무소가 감리하고, B의 설계안은 A가 감리하고 있는 형편이니까요.

• 박 : 그럼 오늘 주인공인 건물로 넘어가죠. 이것이 롯데에서 출연하여 지어진 건물인가 봅니다.

• 안 : 롯데에서 이익을 사회로 환원한다고 할까요... 기업이 서울대학교에 이러한 연구시설을 기부하는 개념입니다.



롯데국제교육관-3층 라운지에서 내려본 내부전경

• 유 : 건물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 안 : 정문에서 순환도로 왼편으로 올라가면 운동장이 있고 CJ인터내셔널 건물이 낮게 있는데, 바로 그 뒤편 부지입니다. 미술관의 위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박 : 설계의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서울대학교 마스터플랜 속에서 지어지는 건물이잖아요?

• 안 : 서울대는 3년마다 전체 마스터플랜을 정비하여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어요. 저는 2007년도에 마스터플랜을 참고하여 설계를 진행했고, 당시 계약은 서울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마스터플랜을 참고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지의 결정 등을 보면, 상황적인 논리도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 박 : 마스터플랜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었나요?

• 안 :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건물의 대응, 동선 등 많이 참고하며 진행했습니다.

• 유 : 여기가 빈 땅이었나요?

• 안 : 오래전에 서울대에서 실험 중 폭발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물을 보관하는 환경안전원이라고 불리는 건물이 원

래 이 부지에 있었지요. 서울대학교는 현재 부지가 부족하여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기존 건물보다 좀 더 크게 짓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규모가 제법 대단합니다.

• 유 : 이 건물에 특정한 학과, 학부가 들어가게 되나요?

• 안 : 특정학과가 아니라 본부지원 성격으로 대외협력처라는 부서가 들어갑니다. 주 업무는 학생들 취업교육도 하고, 글로벌 인재교육, 교류하는 외국인 학생들과 외국인 교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는 입학관리처도 들어오고, 당초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 박 : 혹시 설계하시면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나요?

• 안 : 특별한 것은 없었고, 단지 지금 외벽에 사용된 벽돌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는 건축주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주변의 건물이 벽돌이니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내의 높이(?) 분이 벽돌을 좋아하신다는 추측도 들었고요, 계약 시에도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계약 후에 설계 진행과정에서 내용을 받았습니. 서울대학교는 자체 심의가 있는데, 거기서 구조, 설비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설계 잘했다고 평가해 주셨어요. 교육연구시설의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것에 맞추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이것은 PQ형식으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입니다. 다행히 제가 학교시설의 경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 박 : 계약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였나요?

• 안 : 서울대학교의 계약서인데, 교육청의 교육시설을 계약하는 계약서였지요.

• 유 : 다소 일방적인 내용이 있지 않은가요?

• 안 : 특별하게 일방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외벽 재료 등은 좀 일방적이었습니다. 전 거기에 좀 불만이 있습니다.

• 유 : 서울대학교의 미술관 등은 매우 과감하기도 한데요.

• 안 : 아무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 박 : 설계에는 목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목표가 계약할 당시에 제시되었나요?

• 안 : 네. 그런 것은 서울대학교 시설과에서 대단히 세밀하게 정리해 주었어요. 문제라면, 그 수요처가 당초에는 불분명했고 진행 중에 수요처가 생기면서 혼돈이 있긴 했습니다. 또 당초에는 앞 건물과도 연계되도록 브리지를 만들어야 했기에 이를 설계에 자연스럽게 반영했는데, 앞 건물이 철거 되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브리지가 마치 일부러 모양을 많이 낸 오브제처럼 여겨지게 되어버렸어요.

• 박 : 혹시 설비나 환경에 관한 기준이 있었나요?

• 안 : 네. 그래서 아트리움을 두었지요. 더운 공기가 위에 모이니, 위의 공기를 아래로 당기는 덕트 등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공사비 관계로

시공에서 빠져버렸지요. 또 복도와 공용부분에 팬 코일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건물이 대개 공공공간에는 냉난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유 : 혹시 이 건물에서 '이건 묘수풀이다' 혹은 '매우 잘 되었다' 하는 만족스런 내용이 있나요?

• 안 : 네. 제가 학교 건물을 몇 개 해 본 경험으로는 학교 건물이라는 게 갑자기 큰 스케일의 300평정도 되는 대형실이 있다가 그 옆에 갑자기 매우 작은 연구실들이 연결되는 등의 요구가 있지요. 동선을 풀기도 쉽지 않고, 또 기둥의 배열과 비례적 균형을 맞추기도 쉽지 않은 게 일반적인 학교 건물의 기본조건이었는데, 이 건물 내부에는 그러한 큰 방이 없어서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트리움과 브리지, 계단 등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지요. 면적별로 공사비를 맞추는 발주처의 기본적인 성향 때문에 공용공간이 매우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상당히 큰 공용공간을 확보했죠. 법규적으로는 이 아트리움의 계단이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아서 보다 효율적인 계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죠. 아마도 공공 프로젝트이다 보니, 좀 편하게 진행된 듯합니다.

• 유 : 이 건물의 규모와 예산은 어떠하였나요?

• 안 : 6층 건물입니다. 면적은 1,750평 정도이고요. 이 건물은 예산에 맞추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총 공사비가 70억원(부가세 포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건물의 공사비(약 10억원)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평당 공사비는 약 330~40만 원 정도 되는 셈이죠.

• 박 : 적은 예산으로 잘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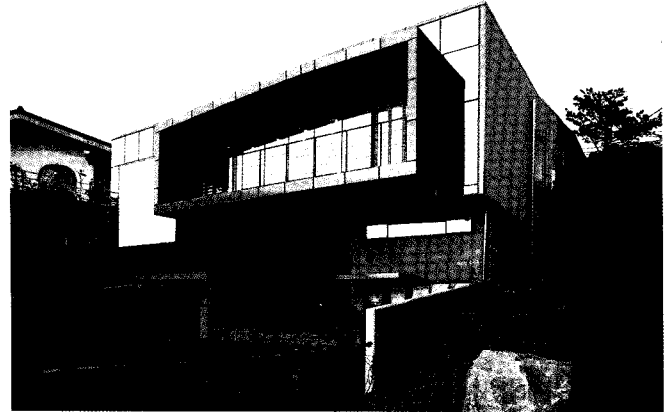
• 안 : 네, 정부단가의 85%로 그냥 공사한 거예요.

• 유 : 시공사는 어디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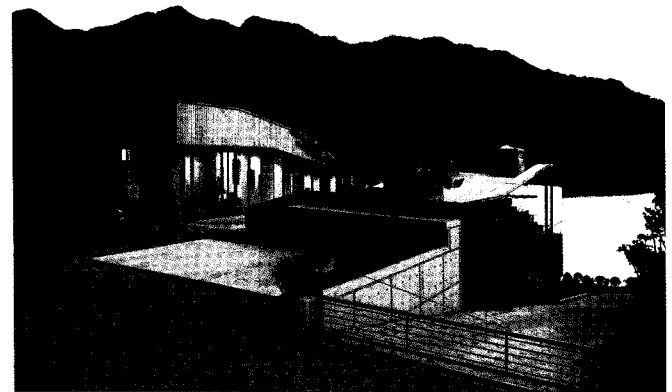
• 안 : 롯데건설이었습니다. 현장소장은 이 현장이 전국의 롯데건설 현장 중 가장 작은 현장이라고 하였어요. 아마도 아파트 현장을 비교한 것 같습니다. 주로 아파트를 건설하시던 분이래 새로운 공법에 당황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 유 : 설계비는 잘 받으셨나요?

• 안 : 네. 서울대학교가 인색하지는 않았습니니다. 평당 단가로 보면, 한 13만원~14만원 정도 됩니다. 공사비 대비로 보면 약 4%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허가받을 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서울대학교는 워낙 건물을 많이 지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이 건물이 아직 준공처리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준공시에는 장애인협회에서 나와서 장애인 시설들을 직접 확인한다고 합니다. 준공검사에서 법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원하는 것을 다 기록하고 그 시설들을 다 충족해야만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검사사의 요청사항으로 움직이니 맞추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연정미술관 전경



도로에서 바라본 연정미술관 전경

• 박 : 이게 합법적으로 만들어 진 것인데, 그냥 원하는 것을 다 만들어 달라면 곤란하지 않나요?

• 안 : 그래서 롯데건설에서는 추가 예산을 잡아서 곧 보강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시설설치 대상건물은 공공이건 민간이건 모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경사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자참하고 와서 모든 램프들을 쟀다고 합니다.

• 유 : 경사도 확인을 위한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야겠네요(웃음) 안우성 건축사님 하신 일을 보면 미술관, 갤러리, 병원, 학교 등의 다양하고 공간이 재미있는 건물을 해 오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물에도 재미있는 요소가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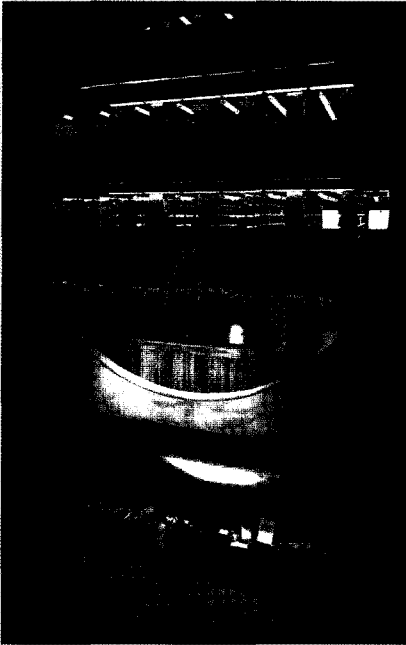
• 안 : 네. 재미가 있었습니다. 발코니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디자인도 자유로웠습니다.

• 유 : 연구실들을 보니, 발코니가 있거나 없거나 하네요.

• 안 : 네. 브리지 앞부분에 있는 방은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여 약간 넓게 쓰고, 또 화장실은 좀 넓게 주었습니다.

• 유 : 학교에서의 이런 방들은 공평의 법칙에 따라 똑 같은 크기로 구성되는게 일반적인데요.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 박 : 혹시 이 건물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감사했던 분들이 계신가요?



Library-Reference Desk Truslow

• 안 : 학교의 건축학과 교수님들과 공무원 분들이죠. 또 총장님께서 젊은 건축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해서 제게 기회가 올 수 있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시설과의 최정인 과장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은 제게 맡겨주시고, 예산과 공사비를 잘 정리하셨습니다.

• 박 : 설계가 끝났을 때, 예산과 딱 맞았나요?

• 안 : 물론 넘었지요.(웃음) 그러나 많이 넘지는 않았는데, 시설과에서는

이런 일을 많이 겪으셔서 그런지 매우 숙련되게 처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요율을 조정하고, 아이템을 조정하고, 재료 조정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 예산을 맞추었습니다.

• 박 : 그렇게 그 분들이 기여를 많이 하셨군요.

• 안 : 네. 조달청에서 쓰는 EMS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우 잘 다루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조달청 단가가 있는 자재들을 변경해서 전체 금액을 맞추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엑셀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실내재료가 네 번이나 변경되었죠. 바닥재는 돌을 다 없애고, 디럭스 타일로 바꾼다, 벽은 무슨 재료로 바꾼다, 이런 식이죠.

• 박 : 그때마다 설계자와 계속 협의하시던가요?

• 안 : 그렇습니다. 재료마감표가 바뀌면 단가를 알려주고, 재료를 알려주고 했고, 공사비가 10% 초과했다면 5%로 맞추고 뭐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식이었죠.

• 박 : 그럼 그런 것을 건축사사무소에서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각 재료의 단가가 있는 소스가 있어야겠군요. 이런 것도 좀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문제가 있네요. 설계가 납품 후 가격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게...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 : 네. 예산을 먼저 세우다보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대안이 필요하죠. 현상설계를 보면 언제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상설계를 당선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예산에 맞추기 어렵고, 당선되고 나면 공사비에 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최근에 저는 통신 분야에서 제법 어려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보니 일반 사무소에서 티브이 안테나 아웃렛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없었으면 했다가 큰 반대를 받았지요. 워낙 일체형으로 들어간다더군요. 통신과 전기는 공사비를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낭비인 것 같습니다.

• 박 : 감리를 안 하셔서 문제가 된 부분은 없으신가요?

• 안 : 무엇보다도 색상이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변경되어버린 내용도 있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학교나 국방부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에 소속된 건축사가 감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의 경우 교육청에 소속된 한 명의 건축사가 모든 건물의 색상을 정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 박 : 브리지 네트워크란 말씀을 쓰셨는데, 이게 뭔가요?

• 안 : 이 건물은 두 개의 동이 아트리움을 사이에 두고 브리지로 연결되었지요. 이렇게 브리지로서 각 기능이 연결되는 것을 가시화했다는 뜻이고요. 루이스 칸의 엑스터 라이브러리가 있지요? 내부 벽이 동그란 도서관 말이에요. 칸은 스스로 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설계했거든요, 저도 학교건물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보았는데, 학교는 결국 학생과 선생간의 교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학생에게 배울 수 있고, 또 학생은 물론 선생에게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보이게 하고, 오르내리게 하는 것이 학교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유 : 그러니까 브리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건물을 설계하면 사용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거군요.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유학을 2년 만에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더 머물러 미국에서 일을 하시고 싶진 않으셨는지요?

• 안 : 1년 반 공부를 했고요. 남아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무소에 지원도 해서 한 곳에서 허락도 받았었습니다. 이게 1996년 초의 일입니다. 집안의 사정에 의하여 귀국하게 되었지요.

• 박 : 건물이 다 완료되고 했는데, 잘 된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정리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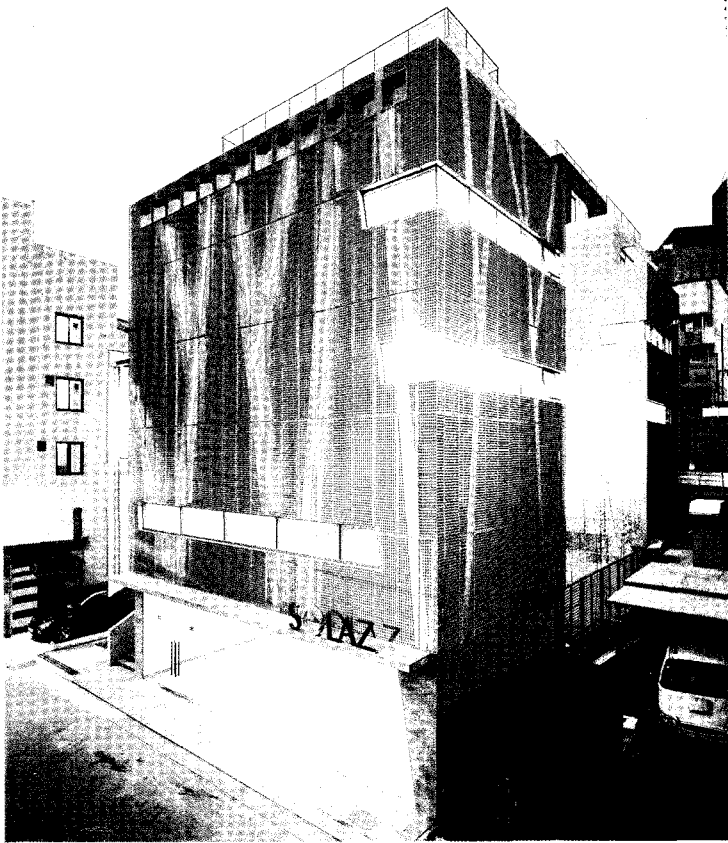
• 안 : 잘 된 점은 감리를 못했음에도 대부분의 구조가 제대로 완성되었다는 것이고, 잘 못된 것은 내부의 칼라 선정과 외부의 몇 가지 칼라와 재료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제일 아쉽죠.

• 유 : 어떤 건물을 설계할 때 제일 즐거우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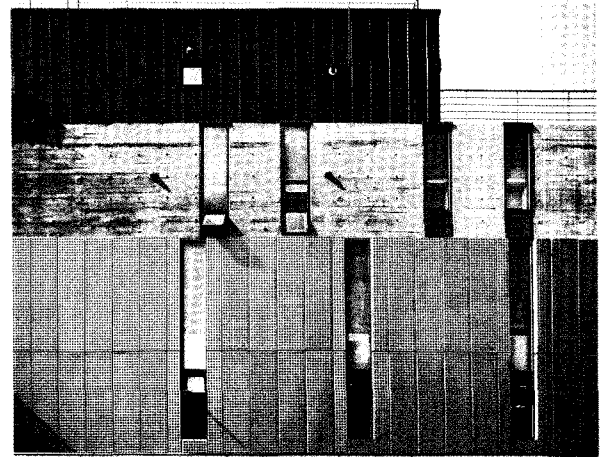
• 안 : 형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화집회시설 등이 재미있고요, 주택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십여 채를 설계하여 지었습니다.

• 유 : 최근 설계하신 것이나, 공사 중인 건물은 어떤 게 있나요?

• 안 : 대구에 지어지고 있는 무역화관 건물 오피스입니다. 코엑스에서 발주한 18층 건물이고, 공장이 두 개 있습니다. 4,000평과 20,000평인 공장이 있습니다. 원자력이나 복합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라디에이터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20,000평 연면적인데, 10,000평씩 두 동입니다. 한 동의 크기가 100미터 곱하기 300미터 장변 크기입니다. 엄청난 스케일이죠.



솔라즈 빌딩 전경



솔라즈 빌딩 동측전경

• 박 : 요즘 건축경기가 아주 좋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 : 그게 주택경기, 아파트 경기와 관련 있는 것 같고요. 또 서울에는 지을 곳이 없다는 것이죠. 또 그간 지어진 건물이 매우 견고해서 새로 지을 날도 멀었다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요즘 이야기되는 토건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 : 그럴 때 건축사들은 어떤 행동을 하여야 할까요? 안 건축사님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 안 : 저는 그럴 때 사무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희는 병원에 약간 특화되어있고, 최근엔 유치원에도 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 보건소에서 허가받아야 하는 시설 기준들이 있습니다. 좀 해보니까 이런 것을 좀 알겠더라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도 교육청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구요. 이렇게 특화되려는 하고 있습니다.

• 유 : 아파트도 하셨나요?

• 안 : 사실 아직 아파트를 못했었어요. 최근에 보금자리주택 하나가 돼, 계약을 하게 되어 이제 곧 경력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단독은 아닙니다. 저희가 2등을 하게 되어 3팀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 박 : 그래도 사무소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우셨을 경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 안 : 네. 처음 차려서 한 일 년 반 정도 어려웠죠. 집에 돈을 가져갈 수도 없었고, 제가 약 2,000만원을 빌려, 차를 사고, 컴퓨터 두 대 사고, 엘리베이터 없는 6.5층에 사무실을 임대하였어요. 신사동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반 지하로 옮겨서 건축주의 허락을 받고 지하에 구멍을 내 지상처럼 만들어 놓고 썼는데 6개월 만에 이 사무소를 나오게 되었어요. 지금 시립대학교 교수로 가신 유석연 선생과 함께 사무소를 하게 되었는데, 나가서 함께 운영하자고 해서 2,000만원 들어간 사무실을 떠나 지금 이 건물에 들어와 독립채산제로 함께 운영을 했죠. 이름도 HNA 온고당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2년 전에 유선생이 학교로 가시는 바람에 저 혼자 남았어요. 이제 와서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초기에 현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1년 반 정도 집으로 월급을 가져가지 않고 축적하여 회사의 내실을 기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초기에는 매우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저 혼자서 매우 많은 일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디자인, 계획, 검토, 수주, 교육, 관리 모두 다 했죠. 하지만 팀이 자리면서 제가 계획하고서 실내재료마감, 천정도 까지만 하면 다음부터의 처리가 팀 내에서 가능하게 되었어요.

• 유 : 온고당의 가장 대표작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 안 : 안상철 미술관, 롯데국제교육관 그리고 솔라즈 빌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 :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유 :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